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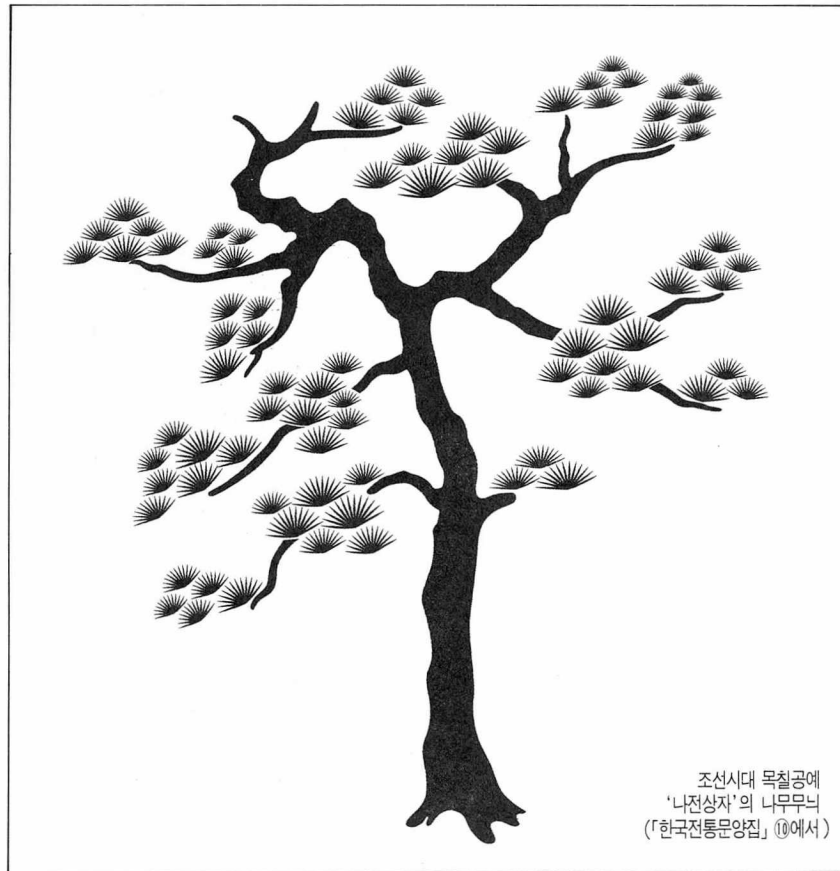
# “새해가 연달아 온들 무엇이 두려울까...”

— 除夜의 辯 —

김진섭

(수필가 · 1903~?)

“우리가 자기의 건강이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기분 역시 아직까지  
학생기분임을 확신하는  
경우에라도, 먹은 나이는  
결국 속일 수 없는 것이라  
할까.”



조선시대 목칠공예  
'나전상자'의 나무무늬  
(「한국전통문양집」 ⑩에서)

신년 새해가 몇개 연달아 온다 한들 무엇이  
무서울 것 있나 하고 미리부터 각오를 정하고  
있는 처지이므로 제야(除夜)에 당해선들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감각이 없는 바이지만, 그러  
나 일 생활자로서 직접으로 이 일년의 결산에  
대좌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없어도 좋은 자갈  
한 걱정 근심이 넓지 못한 가슴을 거래한다.  
그런데 이 자갈한 근심 걱정 가운데 모든 다른  
것은 어렵잡게 생략할 수가 있지만 한가지 집  
요한 우수(憂愁)만은 도저히 생략할 수가 없  
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밤을 자고 나면  
의미없이 또 한 살 나이를 더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가책이다. 그래서 말  
하자면 이 가세지탄(加歲之嘆)은 나이를 먹어  
갈수록 해마다 더욱 심각해 가는 것도 사실이  
다. 아직도 다행히 사십은 못되었으니까 인생  
의 절정에 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사실  
미국의 어떤 저작가 말마따나 인생은 사십부  
터일지도 모르므로 아직도 한창인 젊은 자가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주재님께 하고 꾸지람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또한 두 말을 낼 경  
우가 못되었으나, 그러하되 우리가 한번 우리

의 생활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어떠한가.

## 나이를 먹는다는 것

다른 이들의 생활에 관해서는 물론 알 수  
있을 바 아니나 적어도 내 일 개인에 있어서  
만은 대체 언제 이 인생은 시작되었으며 대체  
언제로 이 인생은 대강 끝날는지, 여하간 그  
한계를 더듬기 어려울 만큼 원래가 기력없고

탄력없는 생애를 살고 있는지라, 이제 나이  
사십을 헤아리게쯤 되니까 무엇보다도 어느  
사이에 쌓이고 모여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무  
내용한 숫자에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모양도 같다. 물론 그 생존에 비약(飛躍)  
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일 따름이요, 사  
람 역시 모든 다른 생물같이 생겨나서 크고  
늘어서는 죽고 마는데 조금인들 이상할 거야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쳐놓고 ‘나이  
먹는 사업’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것이 없는  
것만은 엄숙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생을 받은 자 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늙고  
연후에 죽고 만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의 면치  
못할 운명이거늘 무엇 때문에 구구히 이 노쇠  
의 현상에 상심함인노 하고 누가 말한다면 나  
역시 대답할 말이 없거니와, 그러나 하는 것  
없이 사람이 늙는다는 것같이 괴로운 가책도  
없는 것이고 사실 어느 누구 쳐놓고 사(死)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십 전후에는  
나이 먹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경우가 있을  
만큼 세월은 잘 가지 않는 듯하지만 스물다섯  
을 지나면 서른이 곧이요, 서른의 고비를 넘  
으면 그 속도의 빠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 해서 가령 우리는 종종 자기 나이  
를 확실히 기억할 수 없으리만큼 일년의 세월  
이 공제(控除) 혹은 증첨(增添)되는 경우까지  
있다. 즉 돌차지간(咄嗟之間)에 연령의 질문  
을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자기가 서른여섯인  
지 서른일곱이었던지를 분간치 못하는 것이  
다. 생각하면 일생도 수유(須臾)일 것이다.

## 편집자 노트

### 생에 대한 철학적 통찰

수필가이며 독문학자였던 김진섭(金晉燮)은 삶에 대한 철학적 통찰과 깊은 애착을  
사색적인 필치로 담아내는 많은 수필을 발  
표, 현대 한국수필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  
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호는 청천(聽川). 고향이 경북 안동으로  
알려졌으나 전남 목포에서 출생, 어린 시절  
을 제주도에서 보냈다. 서울 양정고보를 거

쳐 1927년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독문  
과를 졸업, 해외문학연구회·극예술연구회  
등의 창립멤버로 활약했으며, 해방후엔 서  
울대와 성균관대 교수를 지냈다. 1950년 6·  
25때 납북됐다. 수필집 「인생예찬」(1947),  
「생활인의 철학」(1948)과 평론집 「교양의  
문학」(1950)을 남겼으며, 1958년 「청천수필  
평론집」(신아사)이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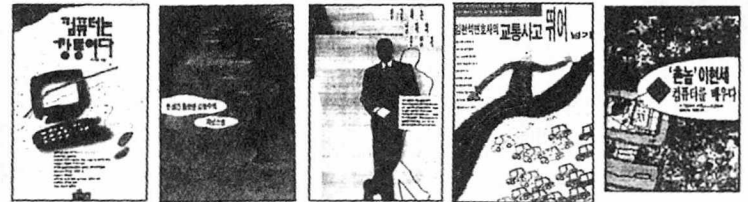
여기 소개하는 글은 「인생예찬」에 수록돼  
있는 「우(又), 제야의 변」(1938) 전문이다.  
제목에 ‘또 우’자를 붙인 것은 ‘제야 소감’  
이란 다른 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호 광고에 보내 주신 많은 출판사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런 원고를 가지고 함께할 출판사를 찾습니다.

▶ <블루마운틴이나 로열 코너 있어요?>(가제)

인스턴트 커피는 원래 전쟁터에서 마시기 위한  
임시방편용 커피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해도  
그저 인스턴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커피의 참맛을 즐기려면 커피콩이 물 좋은 생선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  
**블루마운틴과 로열 코너는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에스프레소는 진한 커피가 아니라 오히려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뜻에서는 '연한 커피'라는 사실  
커피콩이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  
재판하는 동안 공재로 넣고 커피를 끓여 본 적이 있다는 사실,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플레이어 커피,  
커피 향 외에 다른 향-초코렛, 헤이즐넛 등등-이 더해진 것들은  
빈민촌에서 '싼 커피'를 마시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커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나라에 언젠가 커피를 들여오신  
살아 있는 중언의 괴수와 지도(?), 수많은 참된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생생하고 양기롭습니다.



· 바다가 만든 베스트셀러들입니다

▶ 편집 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지 요즘 들어 부쩍 더 많은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만들어 달라는 문의가 빗발(?)칩니다.  
'바다'를 아껴 주시는 많은 출판사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좀더 본격적으로 편집 대행을 시작합니다.

바다는  
단행본에서 각종 전집에 이르기까지...  
그림이 적은 책에서 아주 고급스러운(인쇄가 까다로운) 미술 책까지  
만들어 보지 않은 책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출판물이든  
- 책, Audio-Book, Video, CD-ROM 어떤 것이든 -  
보다 고급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바다를 찾아보십시오.  
국내 최고의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기술진이 함께 합니다.

바다저작권회사 출판기획팀  
책을 잘 만드는 기획자, 편집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8-10 화성빌딩 2층 ☎ 518-6534 팩시밀리 518-6535

이렇게 해서 그러저러하는 동안에 오십이 되고 어느덧 환갑이나 칠초고 나면 그때는 문자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되고 말 터이니,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그나마 그 동안에 한가지라도 볼 만한 업적을, 즉 추억을 남길 수 없을진대 노후의 공허감같이 고문적인 형벌도 없을 것이다. 노인이란 결국 추억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추억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

노쇠는 물론 우리의 생리조직과 육체적으로 결합된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가령 팔다리가 전같이 말을 듣지 않고 기억력은 소모되며 잠은 오래 자지 못하고 시력은 쇠약해지며 모발은 빠지는 동시에 희게 되고 피로가 쉽게 나타나는 데는 자기의 노쇠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육체적으로 명백한 노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는 의식, 벌써 젊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각은 연(年)이 사십으로 족하다 할 수 있으니 나이 사십이 되어가면 여러가지로 주변의 기연(機緣)에 부딪칠 때마다 명백히 이런 의식은 나타나고야 말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경험같이서는 우리가 자기의 건강이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기분 역시 아직까지는 학생 기분으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경우이라도 먹은 나이는 결국 속일 수 없는 것이라 할까. 이러한 자기의 건강에 대한 강조, 자기의 청년적 기분에 대한 역설이 이미 하나의 노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은 고사하고라도, 우리의 좋은 확신은 동배(同輩) 중에 노성(老成)한 태도를 과시하며 세인의 존경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벌써 젊지 않다는 평가를 얻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어 나도 늙어가나보다 하는 자각을 얻게 된다. 자기는 아직 젊다는 의식에 대해서 노쇠에 대한 자각은 대개는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니, 노쇠에 대한 이같은 자의식은 우리가 청년들과 접촉함으로써 의해서 그 체질과 그 기분과 그 사고형식이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가질 때 더욱 현저히 나타나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날 문득 자기집 아이들이 이만큼 컸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

기는 반대로 늙는구나 하는 각오에 달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어느 좌석에라도 앉게 되면 자기 나이가 제일 위가 되는 일도 종종 있게 될 때 우리는 자기의 예상에 반해서 자기도 늙어간다는 사실을 몇번이고 통감하게 되는 일까지 있다. 그래서 자기 기분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한세상 대접이 다르고 공순한 인사와 인사를 올리는 젊은이들이 차차로 늘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은 때때로 자기에게 노쇠의 접근(漸近)을 의식시킴으로 해서 적지 않아 불유쾌하기는 하나 사실을 따지면 연재사십(年在四十)은 확실히 범연시(凡然視)할 수는 없는 연세다. 자기 기분으로는 젊다고 하지만 그도 생각뿐이지 나이 사십이 가까우면 육체적으로도 물론 노쇠적 과정은 충분히 표면화하는 것이니, 가령 체력의 부족과 기억력의 감퇴는 그尤甚(尤甚)한 예일 것이다.

문득 깨달아지는 '늙음'의 자각

앞날에는 그렇게도 우리를 흥분시키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할 때 이것도 우울한 자극이 되는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곤란한 경우는 숫자는 두말할 것이 없고 종종 친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긴다. 이제로부터서는 어학공부 같은 것은 물론 파의(破議)니, 배우는 단자(單字)보단 잊어버리는 단자가 많은 공부나 한다면 적당할까. 살림살이 돌보는 법만해도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그 전에 더 좀 젊었을 때야 그까짓것 밥먹는 일쯤이야 되는데로 무시해버리고 말하자면 가정생활을 이기적으로 처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란 몰랐던 것이, 자기와 친구들의 살림을 가만히 살피면 이제와서는 점점 어느 정도까지는 가족의 생활을 존경하게 된 것 역시 낫살이나 먹어감을 따라서 나온 조화요, 지혜속 같아서 더욱 우울해질 때도 없지 않다.

사실 제야-이 밤에 생각하는 당면문제만 해도 이제는 아이들 본위로 가정 본위로 오는 설을 어찌하면 더 좀 잘 쇠어줄까 하는 것으로 단순한 생각만이라도 자리를 읊은 듯하니, 나도 늙어가는 것이 사실 같아서 제야가 더욱 탄식된다.